

뷰티학과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조절효과 연구

황 완 희* · 윤 천 성**

초 록

본 연구는 뷰티학과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경북지역 K 대학교 뷰티학과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의존적 유형은 부(-)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며 삶의 질을 높여 성숙한 성인으로서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고 구체적 목표를 향해 노력할 뿐 아니라 책임감 있고 성숙한 개인으로의 발전과 취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 개인의 주도적인 셀프리더십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정선, 2012)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 (E-mail: heeao2@naver.com)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taryoun@hanmail.net)

투고일 : 2014년 3월 10일

수정일 : 2014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4년 5월 30일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발달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시키고 이에 따른 미(美)의 추구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삶 속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각광받고 있는 직업군의 하나가 미용관련분야로서 향후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발전될 전망이다.(임경미.2010:홍보경.2012)

미용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 일반전공 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의 폭이 좁고, 이미 결정되어진 것처럼 인식되어 적절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진로문제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최은주. 2011)

미용관련분야는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산업으로써 전문적인 자질과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성공적인 진로결정에 이르렀을 때 이직률의 감소 및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 자신에 대한 적성과 잠재된 내면세계를 파악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셀프리더십과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이 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올바른 진로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과정도 중요한 변인이다.

고향자(1992)는 일상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관해 고민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로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김미주(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뷰티학과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뷰티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와 교육,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1980년대 미국 제조업의 경영혁신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전통적인 관리방식으로 보고 신세대 근로자들의 특성인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자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 Manz & Sims(1989)는 셀프리더십이란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전략 및 인지전략의 총제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셀프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리더십과는 달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셀프 리더십은 개별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기준과 기대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행한 결과에 따라 자기보상과 처벌을 통해 피드백을 유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셀프 리더십의 구성요소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Houghton & Neck(2002)은 셀프 리더십 구성요소를 행위 중심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자연적 보상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셀프리더십의 선행연구는 최근 경영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신학, 여성학, 아동학, 간호학, 행정학 등의 여러 학문 영역을 비롯하여 서비스분야, 체육, 군대조직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축적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효율성과 조직의 성과 등 많은 측면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연구 대상을 유아, 청소년,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급속한 변화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문성, 다양성, 복잡성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함양은 과거보다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정선.2012)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차원이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등의 세 가지 행동 측면으로 보았다.

정보수집 활동으로 이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는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현황, 전망, 입직방법, 필수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중요한 준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작용이라 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도구를 구입해 놓고도 시간과 노력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남기연과 김경아(2011)는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을 개발하면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3. 진로의사결정유형

Harren(1979)은 ‘개인의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특징적 유형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고향자(1992)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하였다. 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 모형을 기초하여 개인이 접근하는 방식과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도에 따라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인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합리적 유형은 확장된 시간 조망 내에서 연속적인 결정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유형이다. 직관적 유형은 합리적 유형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정보탐색활동이나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으며 현재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서적 자각을 사용하며 즉흥적인 느낌과 감정적인 자아 인식에 의해 결정한다. 의존형 유형은 합리적, 직관적 유형과는 다르게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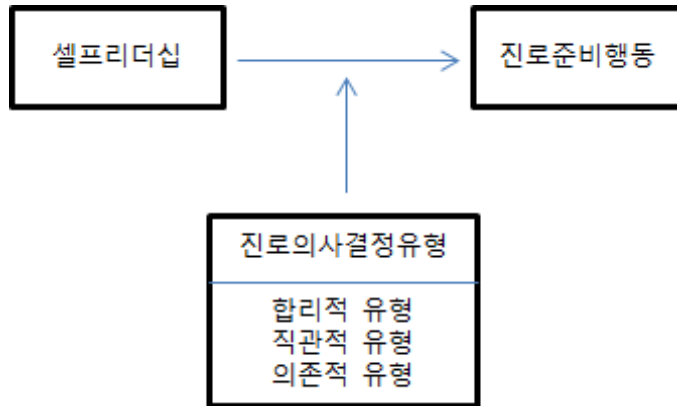
Harren(1979)은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 가운데 합리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전공 선택이나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과정, 직업성숙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직관적 유형은 그 역할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의존형 유형은 진로결정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자(199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할 때 합리적 유형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의존적 유형이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일관되게 발견하고 의존적 유형을 감소시키는 측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대학생들의 셀프 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셀프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셀프 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목표는 달성하기 위해 작성한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 셀프 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직관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의존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셀프 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1 : 합리적 유형은 셀프 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2 : 직관적 유형은 셀프 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H3-3 : 의존적 유형은 셀프 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 설문지 구성

1) 셀프리더십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oughton과 Neck(2002)이 개발한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22문항으로 재구성, 수정 사용한 남기연(2011)의 셀프리더십척도를 사용하였다.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는 김봉환(1997)이 연구 개발한 척도에 이명숙(2003)이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정보 제공과 대학교에 종합인력개발원 등 진로상담 기관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두 문항(7번,11번)을 추가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고태용(2008)의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의사결정 유형 척도는 Harren(1984)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검사(Inventory of Decision Making Patterns)를 고향자(1992)가 번역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화 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명	문항	문항번호	출처
독립변수	셀프리더십	I	1-22	Houghton과 Neck(2002)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	II	1-17	김봉환(1997)
조절변수	진로의사결정유형	합리적유형	1.3.5.10.13.15. 17.22.25.27	Harren(1984)
		직관적유형	2.7.8.11.16.19. 21.23.28.30	
		의존적유형	4.6.9.12.14.18. 20.24.26.29	
인구통계학적 변수		IV	1-9	연구자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가설의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4일부터 11일 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 K 대학교 뷰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20부 중 미흡한 응답 및 무응답의 20명을 제외한 1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9명(9.0%), 여자 91명(91.0%)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 47명(47.0%), 3학년 53명(53.0%)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계열은 인문계 고등학교 71명(71.0%), 미용전문계 고등학교 15명(15.0%), 실업계 고등학교 14명(14.0%)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시기는 중학교 32명(32.0%), 고등학교 51명(51.0%)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 이유는 혼자의 결정이 46명(46.0%), 부모님의 권유 25명(25.0%), 지인, 친척의 권유 13명(13.0%), 학교, 학원선생님의 권유 8명(8.0%), 선, 후배, 친구의 권유 8명(8.0%)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 정보원은 대중매체(잡지/신문/뉴스/인터넷)가 36명(36.0%), 친구나 선배 22명(22.0%), 교수님 20명(20.0%), 가족 16명(16.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은 메이크업이 42명(42.0%), 피부미용 25명(25.0%), 헤어미용 19명(19.0%), 아직 미결정/졸업 후 결정 10명(10.0%), 네일미용 2명(2.0%)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 시기는 1학년 15명(15.0%), 2학년 13명(13.0%), 3학년 32명(32.0%), 4학년 38명(38.0%)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계획은 미용관련업체 취업이 44명(44.0%), 창업(뷰티샵) 19명(19.0%), 진학(대학원) 15명(15.0%), 아직 미결정 14명(14.0%), 미용교육기관(학원 및 학교) 6명(6.0%), 다른 직업 선택 2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9	9.0
	여자	91	91.0
학년	2학년	47	47.0
	3학년	53	53.0
고등학교 계열	미용전문계 고등학교	15	15.0
	인문계 고등학교	71	71.0
	실업계 고등학교	14	14.0
진로결정 시기	중학교	32	32.0
	고등학교	51	51.0
	기타	17	17.0
전공선택 이유	부모님의 권유	25	25.0
	지인, 친척의 권유	13	13.0
	학교, 학원선생님의 권유	8	8.0
	선, 후배, 친구의 권유	8	8.0
	혼자의 결정	46	46.0
진로 정보원	친구나 선배	22	22.0
	가족	16	16.0
	대중매체(잡지/신문/뉴스/인터넷)	36	36.0
	교수님	20	20.0
	기타	6	6.0
전공과목	헤어미용	19	19.0
	피부미용	25	25.0
	메이크업	42	42.0
	네일미용	2	2.0
	아직 미결정/졸업 후 결정	10	10.0
	기타	2	2.0
진로준비 시기	1학년	15	15.0
	2학년	13	13.0
	3학년	32	32.0
	4학년	38	38.0
	기타	2	2.0
졸업 후 진로계획	창업(뷰티샵)	19	19.0
	미용관련업체 취업	44	44.0
	진학(대학원)	15	15.0
	미용교육기관(학원 및 학교)	6	6.0
	다른 직업 선택	2	2.0
	아직 미결정	14	14.0
합계		100	100.0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통요인을 찾아내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을 적은 수의 몇 가지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한 각 문항을 몇 가지 소수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각 문항들이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곧 타당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Principle Components)을 실시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과 관련하여 베리멕스(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베리멕스는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 변수의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용기준은 보통 ± 0.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보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은 ± 0.40 이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0.4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각 요인이 전체 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고유치(eigen value)는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곧 본 연구의 요인분석은 고유치 1 이상, 요인적재량 ±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직각회전방법 중 베리멕스 회전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셀프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다음 표 3은 셀프리더십에 대한 22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8개의 문항이 제거,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 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57.634%)은 '셀프리더십'으로 명명하였고, 이 1개의 요인 적재 값이 ± 0.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셀프리더십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셀프리더십
3. 나는 내게 주어진 과제를 특별히 잘 했을 때 내 자신에게 좋아하는 물건이나 활동으로 보상한다.	.901
4. 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나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대해 생각한다.	.865
11. 때때로 나는 실제로 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룬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857
10.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정확한가를 평가하고자 노력한다.	.834
20. 나는 나의 학업 중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낸다.	.821
9. 나는 이루고자 하는 바를 잘 해냈을 때 훌륭한 저녁식사, 영화, 쇼핑 등과 같은 이벤트로 나에게 보상한다.	.776
8. 때때로 나는 힘든 상황에서 공부할 때 큰 소리로 또는 머릿속으로 나 자신과 대화를 한다.	.755
2. 나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돕기 위해 나 자신과 큰 소리로 또는 머릿속으로 대화를 한다.	.721
17.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을 나 자신이 극복하는 모습을 결단력있게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705
18. 나는 내가 가진 믿음과 신념을 생각하고 평가한다.	.693
13.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이겨 나가려는 나를 돕기 위해 때때로 나 자신과 대화를 한다.	.692
22. 나는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찾는다.	.680
14. 나는 성공적으로 학업 성취를 이루었을 때 종종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 자신에게 보상을 한다.	.649
6. 나는 학업을 성취하기 전에 성공적으로 완수한 내 자신을 마음속에 그리어 본다.	.612
고유값	8,069
분산설명(%)	57.634
누적설명(%)	57.634
신뢰도	.942

2)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다음 표 4는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17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2개의 문항이 제거,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60.116%)은 ‘진로준비행동’으로 명명하였고, 이 1개의 요인 적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진로준비행동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865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843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보았다.	.830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830
1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하여,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801
12.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800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791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종합인력개발원 등 취업관련 부서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785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775
17.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770
7.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748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709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뉘 본 적이 있다.	.708
16.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693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뉘 본 적이 있다.	.649
고유값	9.017
분산설명(%)	60.116
누적설명(%)	60.116
신뢰도	.952

3)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다음 표 5는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30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요인 1(18.363%)은 ‘직관적 유형’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17.213%)는 ‘의존적 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16.554%)은 ‘합리적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3개의 요인 적재

값이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합리적 유형
30.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909	-.108	-.095
28. 나는 “이것이다” 라는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850	.165	.062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829	.066	.022
16. 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787	.004	-.063
23.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662	-.005	.202
2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혹은 육감을 중요시한다.	.650	.397	-.014
7.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637	-.152	.289
11. 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잘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한다.	.622	.031	.160
2.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615	-.108	.157
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른다.	.615	-.097	.004
20. 나의 인기를 떨어뜨릴 의사결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017	.848	-.068
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	-.029	.841	-.066
4.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한다.	-.148	.824	.081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009	.728	-.045
24.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075	.641	-.098
18.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019	.633	.110
29.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037	.632	.029
1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037	.576	-.090
26.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067	.573	-.008
14.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090	.506	-.154
10.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002	-.091	.849
5.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033	-.111	.760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192	-.041	.730
3. 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003	-.046	.698
22. 나는 조금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신하고 싶기 때문이다.	.256	.056	.696
17.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142	-.091	.668
27.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다.	.152	-.098	.660
13. 나는 중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예상될 때,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169	-.248	.651
25.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단계들로 본다.	.153	.081	.619
15.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054	.208	.457
고유값	5.510	5.164	4.966
분산설명(%)	18.368	17.213	16.554
누적설명(%)	18.368	35.581	52.135
신뢰도	.899	.878	.877

3. 기술통계적 분석 및 상관관계 검증

다음 표 6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기술통계적 분석 및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적 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은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2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별 합리적 유형은 평균 3.11점, 직관적 유형은 평균 3.12점, 의존적 유형은 평균 3.00점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검증 결과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r=.615, p<.001$),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별 합리적 유형($r=.506, p<.001$), 직관적 유형($r=.44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존적 유형($r=-.201,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별 합리적 유형($r=.662, p<.001$), 직관적 유형($r=.45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기술통계적 분석 및 각 변수간 상관관계 검증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셀프리더십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셀프리더십	3.23	.615	1				
진로준비행동	3.21	.715	.687***	1			
합리적 유형	3.11	.519	.506***	.662***	1		
직관적 유형	3.12	.547	.447***	.453***	.198*	1	
의존적 유형	3.00	.567	-.201*	-.080	-.104	.017	1

* $p<.05$, *** $p<.001$

4.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H_1 :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표 7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7.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7.735, p<.001$). 독립변수로서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진로준비행동은 .687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있어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17〉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32	.280		2.256	.026	87.735***	.472
셀프리더십	.799	.085	.687	9.367***	.000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

*** $p < .001$

2) 가설 2의 검증

H₂ :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직관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 의존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표 8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3.3%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8.610$, $p < .001$). 독립변수별로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즉, 합리적 유형이 높아지면 진로준비행동은 .593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 유형이 높아지면 진로준비행동은 .33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 18〉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2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03	.469		-1.285	.202		
합리적 유형	.818	.097	.593	8.411***	.000	38.610***	.533
직관적 유형	.439	.092	.336	4.783***	.000		
의존적 유형	-.031	.087	-.025	-.358	.721		

종속변수: 진로준비행동

***p<.001

3) 가설 3의 검증

H₃ :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독립변수(X)와 종속변수(Y)간의 관계에서 가정된 조절변수(Z)가 조절효과를 갖는가에 대한 검증은 다음 <표 9>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19〉 조절 회귀분석 검증방법

$$\text{제 1단계 : } Y = a + b_1X + \epsilon$$

$$\text{제 2단계 : } Y = a + b_1X + b_2Z + \epsilon$$

$$\text{제 3단계 : } Y = a + b_1X + b_2Z + b_3XZ + \epsilon$$

본 연구에서

Y = 종속변수(진로준비행동)

X = 독립변수(셀프리더십)

Z = 조절변수(진로의사결정유형)

XZ =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항

a = 회귀상수, b₁b₂b₃ = 회귀계수, ε = 잔차항

H3-1 : 합리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다음 표 10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이 합리적 유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이 합리적 유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셀프리더십을 모델 I 에 투입하였고, 합리적 유형을 모델 II 에, 셀프리더십과 합리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III 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I 의 설명력은 47.2%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7.735, p<.001). 독립변수로서 셀프리더십($\beta=.687$, p<.001)이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유형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II 의 설명력은 60.6%로 13.4%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74.456, p<.001).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합리적 유형($\beta=.423$, p<.001)이라는 변수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변수인 것을 의미한다. 곧 합리적 유형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합리적 유형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합리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III 의 설명력은 72.4%로 11.8%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83.845, p<.001). 추가적으로 투입된 셀프리더십과 합리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380$, p<.001), 합리적 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표 20〉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합리적 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β	t	p	β	t	p	β	t	p
셀프리더십(A)	.687	9.367***	.000	.473	6.406***	.000	.493	7.923***	.000
합리적 유형(B)				.423	5.723***	.000	.575	8.642***	.000
(A)×(B)							.380	6.410***	.000
F-value	87.735***			74.456***			83.845***		
R ² 값	.472			.606			.724		
Change of R ² 값				.134			.118		

***p<.001

H3-2 : 직관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다음 표 11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이 직관적 유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이 직관적 유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셀프리더십을 모델 I 에 투입하였고, 직관적 유형을 모델 II 에, 셀프리더십과 직관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III 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I 의 설명력은 47.2%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7.735, p<.001). 독립변수로서 셀프리더십($\beta=.687$, p<.001)이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유형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II 의 설명력은 48.8%로 2.7%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8.268, p<.001). 이는 추가적으로 투입된 직관적 유형($\beta=.182$, p<.05)이라는 변수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변수인 것을 의미한다. 곧 직관적 유형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관적 유형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직관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III 의 설명력은 51.2%로 2.8%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5.605, p<.001). 추가적으로 투입된 셀프리더십과 직관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eta=.175$, p<.05), 직관적 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관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표 21>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직관적 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β	t	p	β	t	p	β	t	p
셀프리더십(A)	.687	9.367***	.000	.606	7.540***	.000	.582	7.345***	.000
직관적 유형(B)				.182	2.262*	.026	.242	2.931**	.004
(A)×(B)							.175	2.377*	.019
F-value	87.735***			48.268***			35.605***		
R ² 값	.472			.499			.527		
Change of R ² 값				.027			.028		

*p<.05, **p<.01, ***p<.001

H3-3 : 의존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다음 표 12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이 의존적 유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이 의존적 유형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셀프리더십을 모델 I 에 투입하였고, 의존적 유형을 모델 II에, 셀프리더십과 의존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 III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 I 의 설명력은 46.7%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7.735$, $p<.001$). 독립변수로서 셀프리더십($\beta=.687$, $p<.001$)이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유형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II의 설명력은 47.6%로 0.4%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4.021$, $p<.001$). 하지만 추가적으로 투입된 의존적 유형($\beta=.060$, $p<.05$)이라는 변수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유형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셀프리더십과 의존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III의 설명력은 47.8%로 0.2%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9.314$, $p<.001$). 반면 추가적으로 투입된 셀프리더십과 의존적 유형의 상호작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eta=-.057$, $p>.05$), 의존적 유형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존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라는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표 22〉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의존적 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β	t	p	β	t	p	β	t	p
셀프리더십(A)	.687	9.367***	.000	.699	9.319***	.000	.691	9.055***	.000
의존적 유형(B)				.060	.797	.428	.087	1.011	.314
(A)×(B)							-.057	-.651	.517
<i>F-value</i>	87.735***			44.021			29.314		
<i>R² 값</i>	.472			.476			.478		
<i>Change of R² 값</i>				.004			.002		

***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2013년 11월 4일부터 11일 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 K 대학교 뷰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조절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시기는 고등학교(51%)로 대학진학에 임박하여 짧은 기간에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박순주, 2012; 방경숙, 조진경, 2008; 박진수, 2005)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공선택 이유는 혼자서 결정(46%), 부모님의 권유가(25.0%) 높게 나타났다. 진로 정보는 대중매체(잡지/신문/뉴스/인터넷)가(36.0%), 친구나 선배(22.0%), 교수님(20.0%), 가족(16.0%) 순으로 나타나 동종업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경미, 2009)

전공과목은 메이크업(42.0%), 피부미용(25.0%), 헤어미용(19.0%), 아직 미결정/졸업 후 결정(10.0%)도 있어 전공선택에 대한 정보와 진로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진로준비 시기는 3,4학년으로 취업시기가 가까울수록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졸업 후 진로계획은 미용관련업체 취업이(44.0%)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자신 스스로 동기부여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셀프리더십을 적극 활용한 구체적인 진로교육방안이 마련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의 증가와 의존적 유형의 감소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 3-1과 3-2는 채택**되었다. 의존적 유형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3-3은 기각**되었다.

Harren(1979)의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 가운데 합리적 유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을 촉진시키고 의존적 유형이 진로결정을 늦추게 하며 진로결정상담의 효과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의존형 유형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 고향자(199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며 의사결정에 대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으로 이러한 성향이 강할수록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로계획과 정보탐색 등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 따라, 셀프리더십은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이므로 대학은 셀프리더십의 개념을 접목시킨 새로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체계화하고, 주변에 의존하거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비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합리적인 진로결정 수준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진로준비행동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가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지원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와 선정에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뷰티학과 학생들에게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분포를 골고루 하고, 표본 선정 인원수를 늘리며, 각 변수들의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매개변수를 찾아 질적 연구 내용을 더욱 더 보완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태용(2008).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고향자(2000).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 한국상담학회. 109-124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의사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남홍(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김미주(2010).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민정(200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영희·김경은·최정현(2011).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의식성숙.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3), 한국산학기술학회. 1223-1233
- 남기연(2011). 청소년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고은·이기학(2007). 진로결정자율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한국심리학회. 409-422
- 신승원(201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지. 16(1), 한국성인교육학회. 21-44
- 심상아(2013).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학과적응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어윤경(2010). 진로성숙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실현의 관계: 의사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24(4), 교육심리연구. 1029-1046
- 오진숙 · 윤천성(2012). 미용서비스 종사자의 리더십 자각이 장기근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7(4), 21-32
- 오진숙 · 윤천성(2012). 리더십 자각이 미용서비스종사자의 임파워먼트와 장기근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뷰티산업연구, 6(2), 5-24
- 우선화(2012). 진로결정상태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유순화 · 강승희 · 윤경미(2004).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수준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한국상담학회. 1111-1123
- 이명숙(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 ·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이종길(2009). 사회 체육 전공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한국사회체육학회. 13-26
- 이주희(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03-114
- 이정선(201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39
- 임경미 · 김주덕(2010). 미용학과 재학생들의 학업 만족도와 향후 진로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1), 한국미용학회. 55-68
- 임지영(2009). 공대생들의 진로발달의 이차원적 유형화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공학교육연구. 12(3), 한국공학교육학회. 3-20
-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최은주(2011).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홍보경(2012). 미용학과 학생들의 진로태도와 진로선택성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2), 보건의료산업학회. 151-164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Manz, C. C., Sims, H. P. Jr.(1989).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 to lead themselves. Prentice-Hall, Englewood,Cliffs, NJ
- Houghton, J. D., Neck, C. P.(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magerial Psychology*. 17. 672-691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at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between Beauty Department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n-Hee Hwang * · Chun-Sung Youn **

*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Convergence Industry , Seoul Venture University
(First author) (E-mail : heeao2@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Convergence Industry , Seoul Ventur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staryoun@hanmail.net)

This study investigate career decision making type moderate effect on between self 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collected from 100 persons of K university Beauty Department Students are empirically researched and analyzed.

Main outcome are as follow.

first, self leadership is significantly relate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positive relation).second, career decision making type is significantly relate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ational decision making style and intuitive decision making style are significantly relate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positive relation), dependent decision making style is significantly relate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negative relation). third rational decision making style and intuitive decision making style among the career decision making type that is not moderate effect on between self 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pendent decision making style does not moderate effect between self 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uture study should have to consider this study's limitation and result.

Keywords : Self leader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type